

오늘의 기사관

25일
▶성탄 예배=오전 10시 30분
▶한마음 송년 어울림=오전 11시
▶국제 이민자 가족 한글 문화학교 수료식=오후 2시

여섯 남자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송년 가족음악회

오후 4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후 8시10분 광주시청 대회의실.
▶금난새와 함께하는 CJ가족음악회=26일(화) 오후 7시30분
▶빈스 클라리넷 제 3회 정기연주회=26일(화) 오후 7시30분

년 1월 3일까지 롯데 화랑. 정치인 박근혜, 배우 황신혜, 가수 김장훈 등
▶의제 창작스튜디오 오픈전=27일까지 의재미술관 일대. 김지섭·천대광·안향화·진시영·이정록 등

▶박일정전=12월31일까지 고흥도화미술관. 도판화(陶板畵)·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역사속의 오늘

▶인도 항로를 개척한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 세상 떠남(1524)
▶만유인력 발견한 영국 물리학자 뉴턴 출생(1642)
▶미국의 호렙왕 힐튼 태어남(1887)

함께 풀어봅시다 < 2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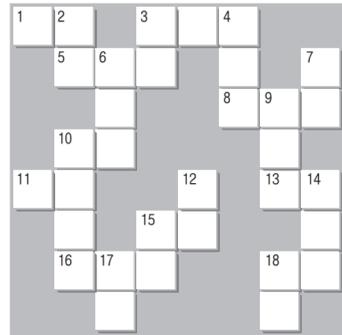
→ 가로풀이

1.야구에서 투수가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직선같이 공을 던지는 공. 3.일이 본격적으로 되어 나가는 형편이나 순서. 그의 사업이 이제야 ~에 진입했다.

안. ~자율학습. 16.차 등을 타기 위해 차삐를 주고 사는 표.→차표. 18.삐를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 세로풀이

2.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난민을 ~하다. 3.겸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주가 되는 직업. 그는 의사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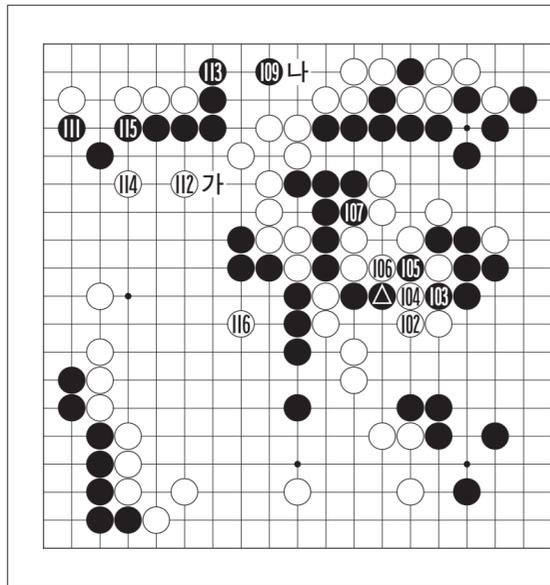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32회 정답>

에 드는 비용.→차임,차상. 18.해가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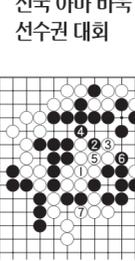
12.산과 산 사이에 산골짜기가 많은 곳. 울 성탄절에는 ~지방에만 눈이 내리겠다. 14.숲의 나무를 베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5.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 안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 17.차를 타는 데

▶지난주 정답자
이영옥·광주시 북구 연제동
조진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제8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

조민수의 진면목 7보(102~116)



<참고도>

백 102는 절대 한수며 흑이 107로 몰았을 때 백이 '참고도'의 1로 이어 굴복한다면 흑 2로 조이고 6까지 선수로 우뚝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중앙을 보강하면 이것은 흑이 유리한 그림이 된다. 그런데 흑이 마땅한 패감이 없다는 것이 문

제. 고민끝에 109로 패를 써 갔다. 조민수 7단도 이것을 원히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109의 패수에 대해 과감히 손을 빼서 110으로 확 이어버렸다. 있고 보니 후속수단이 없다. 그쪽을 끊더라도 중앙으로 도망가게 된다. 할 수 없이 111로 두어 응수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112로 탈출하며 거꾸로 위아래의 흑 대마를 노린다. 임기응변의 달인이자 접근전의 명수인 조민수 7단의 진면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내친김에 113으로 귀를 압박했으나 그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116으로 중앙공격에 나선다. 흑의 위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9단 맥심배 결승 진출

이세돌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맥심배 폐회 임선최강전 준결승전에서 조한승 9단을 267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결승전에 선착했다. 이 9단은 이 대회에서만 3년 연속 결승 무대를 밟게 됐으며, 6, 7회 우승에 이어 대회 3연패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이 9단은 최근 조 9단에게 천원전서 당한 패배를 설욕하는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조 9단과 상대전적에서도 10승 9패로 한발 앞섰다. 이 9단은 유창혁 9단과 박정삼 9단의 대국승자와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 우승 상금은 2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44. 왼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 선수가 4개월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24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차전 아스톤 빌라와 원정경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른쪽 날개로 출전해 빠른 측면 돌파와 인상적인 슈팅을 선보이면서 65분간 그라운드를 질주했습니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1호인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지성 ② 설기현 ③ 이영표 ④ 차두리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변환비 지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5일(음 11월 06일 戊子)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804>', '오하이오 니혼고 <804>', and '니하오 쫑구워 <522>'.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with a title, a question, and a detailed answer in English and Korean.